

전주시 '수소산업 거점도시' 본격 시동

올 상반기 마스터플랜 수립...정부 '수소기반 시범도시' 응모 수소차·수소버스·수소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

전주시가 친환경 수소산업 거점도시 만들기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주시는 올 상반기에 중·장기 로드맵인 '전주시 수소산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소경제, 수소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정책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소산업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지역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한 수소산업 지역 특화과제와 국책과제 발굴, 국토교통부 '수소기반 시범도시' 사업 공모 대응방안 마련, 수소차·수소버스·수소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 등이 핵심 과제다.

수소산업은 정부가 지난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2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국토부의 '수

소기반 시범도시' 공모에 응모할 방침이다.

직원들의 수소경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



전주시는 최근 수소산업에 대한 정책자문과 향후 추진방향 정립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전주시 제공)

해 다음 달 청원공감한마당 행사 때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정부와 관련 기관·업체 등이 수소에너지 확산과 수소 연관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한 민관협의체인 '수소 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에 가입하는 등 수소시대를 대비하고 있

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소차, 수소버스, 수소충전소, 난방·교통 등 관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친환경 수소산업 거점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세무부서 직원 기업 방문 지방세 납부 맞춤 상담 지원 나서

'지방세 멘토링제' 운영

고창군 세무부서 공무원들이 지역 기업을 찾아 지방세 납부를 도와주는 '지방세 멘토링제'를 운영한다.

21일 고창군은 맞춤형 지방 세정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공무원들이 기업을 방문해 상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산업단지과 농공단지 등 72개 기업체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감면 단서조항 미이행으로 생기는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지방세 상담반 4개 반을 꾸려 분기별 1회 이상 현장 방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 상담반은 기업 실정에 맞는 지방세무 정보 제공과 기업운영의 각종 고충 사항을 듣고, 연관 부서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지방세 기업 멘토링제를 매 분기 운영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순창군, 농촌 행랑채 철거 사업 시행

2022년까지 4억8000만원 투입 흉물 주택 300동 정비

순창군이 흉물로 전락한 농촌 행랑채 철거 사업을 시작한다.

순창군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인 행랑채 정비사업을 본격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4억8000만원을 투입해 행랑채 300동을 정비한다.

농촌에 방치된 행랑채는 흉물로 전락해 관광객 등 외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전에도 행랑채 정비를 추진했지만 본체가 없는 경우 빈집 정비사업으로는

지원을 받지 못해 실행되지 않았다.

이에 군은 행랑채 철거에 대한 4개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최근 각 읍면에 전달했다.

일반 행랑채는 80만원, 슬레이트 행랑채는 18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33㎡ 규모 이상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행랑채 철거 사업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주거공간 조성, 농가 재정적 부담해소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

정읍시, 정읍천 벚꽃로·천변로 연결다리 놓는다

내년까지 80억원 투입

아치형 4차선 도로 설치

정읍시가 정읍천의 벚꽃로와 천변로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다.

내년까지 80억원을 투입해 길이 73m, 폭 35m의 4차선 도로로 설치한다.

정읍천과 인근의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아치형 전망대도 폭 7.5m 규모로 함께 만든다. 이번 다리는 정읍천을 가로지르는 8번째 다리다.

완공되면 벚꽃길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교통체증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시는 가설 공사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다리 이름을 공모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www.jeongeup.go.kr)를 참고하면 된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천 다리 조감도.

익산시, 숙박업소 128곳 등

법정의무소독 여부 지도 점검

익산시는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법정 의무소독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연간 9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객실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128개소,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98개소, 버스·장의자동차 27개소, 시장·쇼핑센터 9개소, 병원 26개소다.

또 연간 5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학교(보육시설) 등 203개소,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84개소, 공동주택(300세대 이상)과 사무실, 복합건축물 155개소 등이다.

해당 시설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횡수에 맞는 소독 횟수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 시 1차에서는 시정조치를 유도하고 2차 위반업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익산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및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여 의무대상시설의 소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법정 의무소독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남원 춘향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지 3곳 금연구역 지정

남원의 대표적인 시민 휴식처이자 관광지인 사랑의 광장, 남원예촌 문화체험지구, 춘향테마파크 등 3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시민이나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들이다.

6월 말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흡연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간접흡연 걱정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금연구역을 지정했다"며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전주시, 지역작가 참여 이동형 갤러리 '꽃심' 운영

여행객·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기 풀풀나게 한다

전주를 찾는 여행객과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동형 갤러리 '꽃심'이 전주 곳곳을 찾아가는다.

전주시에 따르면 시각예술작가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과 여행객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형 갤러리 꽃심이 29일부터 운영된다.

시는 도시 곳곳을 문화 콘텐츠로 채워 시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부 없는 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사업으로 지방 없는 미술관 꽃심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공개 모집과 엄격한 심

사를 거쳐 이동형 갤러리 꽃심에 참여할 16명의 지역작가를 모집했다.

선발된 작가들은 오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작가별로 2주 동안 갤러리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시는 작품 이송과 설치를 지원하고, 운영수당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에는 참여작가 합동전 시도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매매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339 (수기동 구,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02호, 38평
- 하천방향, 전체 을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대출 3천만원 가능
- 현재 보5백만원에 월60만원에 임대중
- 시세 - 1억 2000만원 정도, 급매 8500만원 문의. 010-3605-5000